



3면

“작은학교 문제, 공론화위원회 통해 풀어낼 것”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음 5월 22일) 제30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생명, 전북 대표 신성장동력으로”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통해 의지 표명
‘그린바이오허브’ 중심 청사진 마련도 주문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사진)이 인수위 농생명산업지원단 TF를 통해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을 전북의 대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관영 당선인은 앞서 전북도 정부부처에 김종훈 농식품부 전 차관을 발탁하고 명칭을 경제부처사로 바꾸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에 나선 전북도 신원식 국장과 직원들에게 기존의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과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미래 농식품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을 K-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구축된 농진청,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산업클러스터 등을 잘 연계해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의 청사진 마련을 주문했다. 김 당선인은 “첨단농업·식품·미생물·중자·ICT농기계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 고도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 폭염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지난해 도내 환자 93명 발생

전북도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21개소와 연계해 24시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고열, 빠른 맥박과 호흡, 피로감,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의 질병 증세가 보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신고된 도내 환자는 총 93명(전국 1,370명)으로, 직전 해의 71명(전국 1,078명)보다 22명 증가했다. 고령자 및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폭염대비 건강수칙은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12시~17시)에는 휴식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수칙을 잘 실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한옥마을에서 들려주는 활기찬 재즈의 선율... 제1회 전주재즈페스티벌



지난 17일 전주한옥마을 내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제1회 전주재즈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미8군 브라스밴드인 Spartan Brass Band(스파르탄 브라스밴드) 등이 전주한옥마을을 거리 곳곳을 누비며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활기찬 재즈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제1회 전주재즈페스티벌은 19일까지 열렸다. <관련기사 4면>

‘대한민국 대표 종교 치유순례지, 전주’

시, 문체부 주관 종교문화여행 프로그램 공모 선정돼
서문교회·치명자성지·승암사·한벽루 등 자원 풍부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 등 준공 순례길 개발 유리해져

전통성당과 치명자성지, 서문교회, 동학혁명기념관 등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 치유순례지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치유순례길 사업은 국민들이 풍부한 종교문화자원과 예술공간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거닐며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원동력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국 8개 시·군이 경쟁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PT발표 심사를 통과해 최종 5개 시·군에 포함됐다. 이는 전주 곳곳에 △서문교회, 예수병원,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 개신교

종교자원 △전동성당, 전주교구, 치명자성지, 초록바위 순례지 등 천주교 종교자원 △승암사, 동고사, 남고사, 정혜사 서고사 등 불교 종교자원 △전북교구, 교동교당, 한벽루 등 원불교 종교자원 등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전주향교, 선비문화관 등 유교 자원과 △동학혁명기념관, 녹두관 등 천도교 관련 자원 등 다양한 종교자원이 풍부하고, 각각의 장소에 서려있는 역사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다. 더욱이 올해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불교 세계명상센터가 준공했다는 점도 전주 종교치유순례길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당일여병원,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 개신교

주 종교 치유순례길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종교 치유순례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코스를 구상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이후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보조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선정기로 했다. 시는 향후 종교 치유순례길 활성화를 위해 각 종교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에는 종교자원이 매우 풍부한 덕분에 기존 종교별 다양한 순례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전주 종교 치유순례길은 기존 순례길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두어 비교교인도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할 계획”이라며 “편견 없이 종교 치유순례길을 체험하며 치유와 행복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 4주 연장

정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 의료대응 역량 등 일부 지표는 달성했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의 면회와 외박 등 일상회복 폭을 넓히기로 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